

경주·포항, 오늘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공동 격상

한달 새 200여명 확진자 발생
확산세 꺾기 위한 총력전 돌입
1월 3일까지 '노래방 영업 중단'
카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따라
단계 재조정·연장 여부 등 판단



▲Ju Nak-young 경주시장

▲Lee Kang-deok 포항시장

경주시와 포항시가 30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최근 한달 사이 경주 관내에서는 지역 내 감염을 통해 1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포항 또한 이달에만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주·포항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는 재조정 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29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3차 대유행 양상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확산되고 있고 최근 경주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경주시는 28일 경주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포항시와 연계해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현재 포항은 최근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시내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포항·경주 양도시 상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생활권인 포항시와 경주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지를 방문하거나 몸살 기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제일 먼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양ды한마음 체육관·포항KTX역·남북구보건소 선

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 0시를 기해 경주 지역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중단된다.

또 카페와 일반음식점은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영업만 허용하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에서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이·미용원, 상점, 마트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또 5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 시설과 경로당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며 경주 전역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 대해서도 영업이 중단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강읍과 내남면에 각각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총 304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집단발생에 대비 △산대초 527명 △내남초 96명 △풍산금속 안강사업장 1919명 △양북초 136명 △경주여고 453명 등 총 3131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경주시는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주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개한 '경주시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르면 감염경로는 △국악관련 21명 △안강지역 38명 △내남지역 15명 △성광교회 관련 17명 △기타 18명으로 조

사됐으며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2명 △10대 19명 △20대 7명 △30대 7명 △40대 13명 △50대 11명 △60대 이상 50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또한 구룡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8일

까지 구룡포 내 6347명(12월 28일 기준)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구룡포읍 전 읍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구룡포읍 내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구룡포읍 소재 다방(32개소)·노래연습장(6개소) 집합금지 특별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룡포읍에서 출항한 선박 회항(30일 24시 이전까지 구룡포항 입항)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추가 행정명령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역의 선제적·대대적·예방적·공격적 검사를 위해 구룡포읍 및 장기면 양포리 기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종교시설 집중점검, 요양원·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집중적 방역 강화, 호미곶 해맞이 광장·영일대 해수욕장 등 해맞이 명소 전면 폐쇄, 유흥시설 및 전통시장 등 5일장 노점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대구시,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로 기업 유치 '박차'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 등
국내복귀기업 위한 제도 마련

대구시는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온 '대구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이달 30일자로 '대구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는 효율적인 기업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조례 명을 포함,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사후관리강화 등 유치업무 전반에 대해 전부 개정하게 됐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시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당초 10억원→ 5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지역 우량기업 유출 방지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2년→ 4년), 직원 거주지원 제도(직원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지원, 최대 10억원)를 신설, 국내복귀기

업 및 역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도 상향해(1인당 50만원→ 100만원) 보다 많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투자이행점검 명문화, 사업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도 확대(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했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규칙 전부 개정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기업유치촉진협의회 구성 등 코로

나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투자유형별 전문 투자상담을 통해 입지 물색부터 맞춤형 인센티브 등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신 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내년에도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올들어 가장 추운 겨울온다 경북 북부, 한파주의보 발령

아침 영하 12도까지 내려가
이번 추위 장기간 계속될 듯

대구·김천 -6, 포항·울진 -4
대부분의 지역도 5~7도 '뚝'
수도권 동파 대비할 것 '당부'

대구기상청은 29일 오후 9시를 기해 문경, 청송, 영주, 예천, 영양·봉화 평지, 북동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30일 아침 수은주는 -12도까지 내려간다.

또한 대구·김천 -6도, 포항·울진 -4도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5~7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암석장 냉해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YouTube 경상투데이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영주, 2022년 국비확보 위해 ‘발 빠른 행보’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
정보공유 공조체계 구축 논의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등
42개 신규·계속사업 1121억원**

영주시는 29일 시장실에서 장옥현 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행보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시기별·사업별 전략적 대응으로 사전절차 이행절차와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중앙부처와 국회 등 견의활동 강화,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2022년 국가투자예산의 총 건의액은 42개 사업 1121억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로봇용 RV감속기 제품화 기술개

발 사업 70억원,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50억원, 영주 시립박물관 건립 6억원, 땅주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6억원 등 총 22개 사업 497억원의 국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 SOC개발과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체인지 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은 비점오염저감사업,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하당동 공공서관 및 주차장 건립,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총 20개 사

업 624억원이며 2022년에도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옥현 시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국비확보에 있어서도 순탄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걱정에 밤복을 잡히지 말고 국비확보를 위해 한 발 앞서 준비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과정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포항, 미세먼지 배출 줄여 시민 건강보호 나선다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추진**

포항시는 이달부터 오는 2021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시민 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

치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33 \rightarrow 24 \mu\text{g}/\text{m}^3$) 개선됐음을 발표했다.

포항시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mu\text{g}/\text{m}^3$ 이었으나 1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인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8 \mu\text{g}/\text{m}^3$ 로 저감돼 28% 저감됐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은 배출감축 목적이 사업장·수송·생활 부문과 견

강보호 목적 생활환경 밀착보호·정보 제공 부분으로 총 14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배출감축을 위해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5등급 차량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건설기

계 사용제한 조치 △도로 비산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중보급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단속 등을 시행하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대 운영 △여린이집, 노인요

이정수 기자gst3000@naver.com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분권 통한 국가균형발전 위해 더욱 노력”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자 선정
지역 코로나 성공 방역 등 공로**

2020 한국지방자치대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수여식이 2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가 그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공로가 인정되는 광역단체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2월, 3월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점과 2019년 7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점, 대구시청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해 15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과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점 등의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이번 상



을 수상하게 됐다.

권영진 시장은 “이 상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면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닥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대구정신을

보여준 대구시민들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도의회 출입기자단 ‘BEST 도의원’ 선정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0 베스트(BEST) 도의원에 남진복(울릉), 정영길(성주), 이춘우(영천) 의원이 선정됐다.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지난 2015년부터 BEST 도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연말에 조례발의·출석상황·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BEST 도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당선된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남진복 의원



정영길 의원



이춘우 의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경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발의해 저출생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5·6·7대 영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 의원에도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농어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의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오는 2021년 1월 개최하는 제32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탁월한 기획력으로 책임행정 펼친 김복규 봉화군 기획감사실장 ‘퇴임’

**석포·법전면장 등 역임
40년 공직생활 ‘마무리’**

**부이사관 특별 승진으로
홍조근정훈장 수상 영예**



“까까마리에 교복을 벗고 공직에 입문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강산이 벌써 4번이나 변해 세월유수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4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오롯이 군민을 위해 봉직하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김복규(59) 기획감사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후배공직자들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 한생애 청춘을 바쳐 일해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1일자로 명예퇴임 한다.

김 실장은 평소 온화한 내유외강의 성품으로 폭넓은 대인관계와 소통을 통해 후배공무원들의 존경을 받아 왔으며 인간미 넘치는 합리적인 사고와 탁월한 기획력으로 책임행정을 펼쳐 주위의 귀감이 돼왔다.

봉화 명호가 고향인 김 실장은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지난 1980년 물야면에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다.

군 제대 후 공직생활 중에 경북전문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주경야독하며 졸업했고 지난 1999년 6급 계장을 거쳐 2008년에는 사무관으로 승진해 문화관광과장, 의회사무과장, 석포면장, 법전면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7월에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봉화군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임해 왔다.

지난 1997년 총무과 행정계에 근무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IMF

를 맞아 공무원 구조 조정을 지혜롭게 무리없이 수행했으며 2010년 문화관광과장으로 역임할 당시 봉화 은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기획감사실장 재임 시에는 청렴과 성실, 국도비 확보, 지방재정균형집행 등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특히 군정 기조인 봉화파스의 조기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이 컸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모범적인 공직생활로 국가사회발전유공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내무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 경북도지사, 봉화군수, 제50보병 사단장 등의 표장을 다수 수상했으며 명예퇴임하면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특별 승진해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공직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하게 이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naver.com

“코로나19 위기 속 새로운 희망 창출”

〈이철우 지사, 2020년 성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큰 결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 단위 ‘최우수’ 선정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자산업 재도약

내년도 국비예산 9조7162억 확보, 노력 빛 발해
신속한 병상 확보 등 도민·의료진 노고에 감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2020년 경북도 경성과 및 2021년 도정 방향’과 함께 지난 한 해의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도민들께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경북인 특유의 희생정신을 보여 주셨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먼저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경북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올해 성과 중 가장 큰 결실은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확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공항 사업을 확정 지은 것은 대구 경북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 발전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키우고 경북을 세계로 향하게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의 변화와 혁신을 정부에서도 인정한 정부합동평가 1위와 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구미 연구개발특구 등 미래 신산업 특구 유치 △철강 재도약 산업 협력과 및 1조원 규모 산단 대개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유치 △투자유치 6조155억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실화 △국비 9조7000억원 확보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통합신공항 확정

경북도가 가장 먼저 뽑은 핵심 성과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은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K-2 공군기지 이전건의 서를 제출한지 6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생산

유발액 35조원, 부가가치유발액 15조원, 취업유발인원 40만명(2019년 2월 대경연)에 이르는 대역사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이전사업비 협의, 부지선정 기준 합의, 유치신청을 둘러싼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시도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대표적인 성과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울러 지난 1981년 정부에 울릉도 공항 건설을 건의한지 40년 만에 11월 울릉공항의 착공이 시작돼 지역 주민편의 증대와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합동평가 1위

이철우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도정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이었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도청 앞마당에 공룡 화석뼈 조형물을 설치하고 AI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 마련을 위한 공간으로 상상마루(스마트 오피스) 등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정책 우수사례 평가부문)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경북의 변화를 정부에서 공

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미래 신산업 특구 유치

지역 제조혁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해 포항에 이어 올해 7월 구미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다.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2.57㎢)는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연구·산업기능이 복합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신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 자립화 촉진을 통해 지역 전자산업 재도약의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7월 국내 최초 대마 산업화를 위해 안동을 중심으로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하고 22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70여년 동안 미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돼 섬유와 종자 재배만이 허용된 기존 대마산업을 바이오산업 영역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책사업 유치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해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7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4억원을 투입해 지역 철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등으로 철강산업의 생태계와 시장변화의 대응 역

량을 강화하고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제조 혁신을 위한 ‘산단 대개조 사업’에 경북도가 최종 선정(5월)됐다.

경북 산단 대개조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 규모에 이르며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김천, 칠곡(와관), 성주 산단을 대상으로 ‘전자산업 부활 및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총 3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산업부 주관 ‘에너지 산업용복합단지’ 지정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에너지산업용복합단지’는 영덕을 중심으로 풍력리파워링단지, 풍력발전단지 등 산업용합거점지구 등을 조성하며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31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투자유치 6조155억원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방문 및 투자유치 설명 등을 꺼려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81건, 6조155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냈다.

지난 2019년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GS건설(1000억원)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730억원), 한미사이언스(3000억원), 쿠팡(1000억원)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졌으며 특히 국내 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5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 그간 경북도가 펼쳐온 국내외 기업 지원정책이 빛을 발하기도 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실화

민선7기 이철우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스마트팜 청년농부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LH 청년행복주택을 통한 주거 시설을 확충하고 안계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및 안계 행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교육·의료·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진 대표적 지방소멸 극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64명의 청년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활동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생활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모델 케이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비 9조7000억원 확보

오는 2021년 경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총 9조7162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건의사업은 5조808억원, 일반 국가보조사업은 4조6354억원이다.

특히 경북도가 견의해 확보한 국비예산 규모는 올해 4조4664억원, 오는 2021년 5조8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민선7기 이후 42.8%나 늘어났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도 총 177건에 1조6829억원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등 그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노력과 땀이 값진 결실로 돌아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성과들 이외에도 올해 초 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당시 △신속한 병상 확보와 △경북형 마스크의 제작·배포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경북형 방역모델을 통해 “초기 감염 확산세를 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준 도민과 의료진, 자원봉사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좁은 골목길, 사각지대는 정말 위험해요!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을 방해해 위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키울 수 있으니 골목길 불법 주정차의 나비효과 쉽게 생각하면 안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학부모와 하구언 차량으로 스쿨존이 혼잡해지는데요 이럴때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져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 아이들은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스쿨존의 주정차는 절대 안되겠죠?

내년부터 '월소득 169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가구는 270만원, 14.2% 인상
근로소득 공제액 96만원→98만원**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1년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2020년 148만원에서 14.2% 인상된 169만원, 부부가구는 2020년 236만8000원에서 2021년 270만4000원으로 14.2% 인상된다.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이 2020년도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도 기

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2021년도 예상 수급자는 598만명으로 256만명이 추가로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2021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새해맞이, 안전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이달까지 탐방로 출입 제한
내년 1월 1일~3일 해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해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전 탐방로에 대해 입산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적으로 탐방로를 개방한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정상부, 봉우리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이성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에 대



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서 국립공원공단 SNS, 경주국립공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될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새해맞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2021 안동 암산얼음축제 취소

행사 가치보다 시민 건강 우선

영남지역 최대의 겨울축제인 2021 안동 암산얼음축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취소 됐다.

안동의 사계절 축제 중 겨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동 암산얼음축제는 가족형 겨울놀이 축제로 암산 유원

지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체험 거리를,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선물한다는 테마를 통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임에도 매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행사의 가치보다 시민의 건강이 우선

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돼 암산얼음축제 주진위원회 회의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 등 타 지역의 주요 겨울축제들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차례로 취소 또는 취소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와 안동암산얼음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축제 취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겨울축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향후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군위 의흥시장 골목, 벽화거리로 재탄생

정겨운 시골장터 추억·정취 '만끽'
주변 맛집도 많아 눈·입 즐거워

군위군 의흥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경북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의흥시장 일원에 시골장터의 주의를 되살리는 의흥면 읍내길 벽화거리 조성했다고 밝혔다.

정겨운 시골장터 속 삶의 모습이 생생히 담긴 벽화 담장을 걷다보면 의흥시장의 다양한 풍경과 어우러져 추억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의흥시장 주변에는 떡지고기, 닭포, 국수 등을 파

는 맛집 또한 많아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먹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도 쏠쏠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흥면민 및 방문객들이 벽화를 감상하며 소소한 행복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찬 면장은 "의흥면 읍내길 벽화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의흥면 읍내 전체를 관광명소로 만들어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의흥시장까지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향우회연합회 회원 2000여명이 법무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2010년 청송군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주민들과 청송군의 요구를 수용해 2010년 8월 '청송군'을 '경북북부교도소'로 명칭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근 '경북북부교도소'의 사용을 재차 강조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청송교도소 아닌 '경북북부교도소' 공식명칭 써달라

청송군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이송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에서 '경북북부교도소'의 명칭을 '청송교도소'로 보도하고 있어 공식명칭인 '경북북부교도소'의 사용을 요청했다.

'청송교도소'란 명칭은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지난 2007년 청송군

호흡기전담클리닉, 예방접종
소아과·치매진료 등 유지키로

영양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8일부터 보건소의 일반진료업무 일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보건소의 일반진료 일부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상황이 시급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단되는 보건소 업무는 일반진료,

한방, 치과, 물리치료, 재활치료이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소아과 및 치매진료, 예방접종, 제증명발급 업무는 유지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인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홍보 및 방역 활동 강화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경북북부 제2교도소의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접경지역과 연계 도로 주변에 강력한 실외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naver.com

상속한정승인공고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심판

사 건 : 2020느단1081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 이상민(740213-1 * * * * *)

주소-경주시 북정로 93(성동동)

등록기준지-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138번지

소송대리인 번호사 권용기

피상속인 : 망 황현숙(530519-2 * * * * *)

2019년 12월 22일 사망

최후주소-경주시 북정로 93(성동동)

등록기준지-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중앙길 47

주 문 :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황현숙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서한 2020년 11월 11일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년 12월 23일



Hopeful Gyeongsan towards a New Future

경산시
GYEONGSAN

시내버스 보조금운용 투명성 강화 '열의'

대중교통팀 신설 등 대책 마련
범시민 버스정책자문위 구성
운송원가 산정 용역 확대 실시

경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팀'을 신설하는 등 강화대책을 내놨다.

대중교통팀은 버스 공영제에 준하는 강도 높은 운송원가 산정과 경영 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6급 팀장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인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

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미 조직된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산하 시내버스 현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며 첫 번째 회의가 30일 부시장실에서 열린다.

이어 2년마다 실시해 오던 '시내버

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확대로 기존 운영되던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유류비와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적자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49억1700만원(50.1%) 증가한 147억2500만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인데 결과보고서는 시내버스의 내년도 적자 예측 규모는 지난 2019년 대비 2억

3800만원(2.43%) 늘어난 100억4700만원이라고 예측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1회 추경 55억원, 2회 추경 1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배정하고 당초 예산 95억원을 합해 올해 총 160억원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집행했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경북도 내 타 도시들의 경우 1차, 2차 추경액은 경주시보다 낮게 책정했지만 3회 추경

에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도시인 포항시는 추경을 통해 41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안동시는 52억원, 경산시는 50억원, 김천시는 16억원, 구미시는 10억원, 영천시는 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관광객 수가 급감한 탓에 전년대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35% 이상 감소했고 이로 인해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경주시의 고강도 시내버스 정책이 연이어 불거진 보조금 논란을 종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보건소, 지역민 건강 지키기 '최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 선정
당뇨병 자가관리 지침서 개발 호응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심뇌혈관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보건소는 29일 라이온코리아㈜와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출산 가정에 손세정제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출산 가정에 아기 탄생을 축하하면 손세정제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코로나19 예방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손세정제 세트)을 전달한다.

라이온코리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전국 36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손세정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 가정이며 신생아 1명당 1세트를 지원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대릉원·승혜전, 소공원 조성… 도심 속 쉼터로

10억 투입, 2021년 1월 준공 목표
수목·휴게 그늘막·의자 등 설치

신라 고분군이 모여 있는 대릉원과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영정을 모신 승혜전 사이 자트리 공간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경주시 황남동 208-4번지 외 15필지 2364㎡ 자트리 공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승혜전 동편 소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소공원內 다양한 수목, 휴게 그늘막, 의자 등을 설치해 승혜전과 대릉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쉼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주시는 규모 73.44㎡의 야외 화장실도 만들어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승혜전이 경순왕 뿐 아니라 신



라 최초의 경주김씨 왕인 미추왕과 삼국통일 과업 이룬 문무대왕의 위패를 모신 곳인 만큼 사업 추진 전 경주김씨 문종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김종순 왕경조성과장은 "경주시는 경주다운 고도이미지 찾기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승혜전 동편 소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 교통불편 해소 '기여'

현곡 하구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경주시는 현곡푸르지오 등 2635세대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인 '현곡 하구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및 주

민편익을 기대하고 있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지방도 904호선과 현곡푸르지오 및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총 2635세대)의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확장 전

이 구간은 급격한 경사로 인해 운전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푸르지오~현곡초교간 도시계획도로' 및 '하구~금정간 도시계획도로' 등 연결도로의 확장·개설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성될 전망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21C글로벌 리더 양성 新화랑 풍류체험

화랑 심화과정(셋째 토요일)

시간	내용	장소
14:00-14:20	집결 (화랑복 착의/사진촬영)	
14:20-15:00	영웅 화랑이야기 (영상/스크린)	서악서원
15:00-15:20	화랑예법 (다도체험)	
15:20-16:10	화랑무예 (택견, 죽궁)	죽궁장
16:20-17:40	영웅 화랑 스토리 탐방 (해설사 동행)	태종무열왕릉 - 진홍왕릉
17:40-19:00	석식(화랑주먹밥 체험)	서악문화공간
19:00-20:00	화랑풍류 (화통콘서트 / *화랑+통일)	서악서원

화랑 입문과정(주중 1회) ※ 40명 이상 단체신청시 진행 가능합니다.

시간	내용	장소
20분	집결 (화랑복 착의/사진촬영)	
20분	화랑예법 (다도체험)	서악서원
140분	화랑무예 (택견 or 죽궁) 영웅 화랑 스토리 탐방 (해설사 동행)	태종무열왕릉 - 진홍왕릉

참가비 | 화랑심화: 1인 10,000원(체험비, 입장료, 주먹밥)
화랑입문: 1인 5,000원(체험비, 입장료)
신청문의 | 문화재보존활용센터 054-776-1950 silla.or.kr

新화랑 풍류체험이란?

- 김유신·김춘추의 훈적을 찾아 떠나는 화랑체험
- 세속오계로 보는 나의 인생오계

주관: [주]문화재보존활용센터

후원: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2020년 생생문화재



대구·경북, 신남방지역 교류협력 확대 '도모'

공동 교육ODA(공적개발원조)사업 시행 MOU
아세안 국가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등 진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사무소 공동 설립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판우 대구교육대학교 총장과 29일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공동 교육ODA(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세안(ASEA N) 국가 등 신남방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전략적 교류 추진을 위한 포괄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대구시는 경북도, 대구교육대학교와 함께 내년에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 협력위원회 경제사회분과위원회의 신규사업으로 채택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다양한 ODA

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경북도와 상생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신남방지역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부터 외교 다변화를 위해 집중 공략하고 있는 지역이며 인구 20억명 이상의 거대시장으로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블루오션 지역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지역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사무소를 공동으로 설립해 지역 진출의 교두보 기지로 삼아 함께 활약하고 있다.

이번 대구·경북 상생 ODA사업은 대구교육대학교가 지난 2016년 실시했던 베트남 컨터시 '초등교사 역량강화 연수사업'의 경험을 발전시킨 것으로 교

사 교육·행정역량 강화, 교과과정 현대화, 대구·경북의 신남방지역 교사·학교·기관 등과 유기적 지식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이라닝(E-learning) 플랫폼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의 국제협력과 해외마케팅의 타깃 지역인 아세안 국가들과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세안 국가의 양질의 교육 달성을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인구 6억5000만의 거대시장인 아세안 지역과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 rositante@kakao.com

대구도시공사, 지역 사회적가치 창출 '시동'

부동산원·시민센터와 협약 체결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나서

대구도시공사는 29일 한국부동산원, (사)대구시민센터와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청년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프리랜서협동조합, 예비 창업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 jota123@hanmail.net

대구, 지역형 배달플랫폼 성공 출시 '준비 착착'

인성데이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수료·고객 유치, 성과 목표 합의
카드 매출 24시간 내 정산 등 추진

대구시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 기존 음식 중개 서비스(배달앱)의 폐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구형 배달플랫폼' 서비스사업자 공모에서 인성데이터(대표사업자)-KIS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9개 기업이 9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대표사업자의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거나 서비스 개시 전 대구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상장사, 은행 등이 사업 공모에 참여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성데이터(주)는 지난 2001년 대구에서 설립돼 현재 웹서비스 플랫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로지울을 통해 배달대행 플랫폼 점유율 1위인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등 물류 및 배달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2019년에는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인성데이터(주) 플랫폼의 총 거래액이 10조원을 넘고 최근 네이버로부터 약 4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400억원의 투자를 받을 만큼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플랫폼' 출범을 위해 인성데이터(주)와 협상을 진행하고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서비스를 개

비스 분야 상장사인 나이스(NICE) 그룹의 자회사인 KIS정보통신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모에 참여했으며 기술력, 추진전략,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 5개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성데이터(주)는 제안서를 통해 기존 6~13% 수준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고 카드 매출 24시간 내 정산, 배달기사 바이크 렌트 및 단말기 지원, 급식 아동 배송비 지원, 창업 기업 및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제공,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한 대규모 할인 쿠폰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플랫폼' 출범을 위해 인성데이터(주)와 협상을 진행하고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서비스를 개

시한다는 계획이며 서비스에 필요한 앱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맹점 모집, 고객 유치 등은 인성데이터(주)가 담당하고 대구시는 홍보 등을 간접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는 협상 과정에서 인성데이터(주)가 제안한 서비스의 실행 방안을 포함해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인 결제 연동, 대용량 주문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고 수수료, 고객 유치 등의 성과 목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형 배달플랫폼의 성공적 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 rositante@kakao.com

서구보건소, 어르신 인지강화 '도움 손길'

750명 대상 치매안심꾸러미 배부
학습교재·색연필·마스크 등 구성

대구 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지강화를 위한 교재와 교구가 들어있는 '치매안심꾸러미'를 배부했다.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비대면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예방프로그램 등 참여자 150명과 독거어르신 600명에게 인지강화 교재와 교구, 방역물품 등 9종류

가 들어있는 치매안심꾸러미를 배부해 집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꾸러미에는 인지강화에 도움이 되는 학습교재, 색칠노트, 칠교놀이, 색연필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마스크, 파스, 양말 등 9가지 용품으로 구성됐으며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들에게는 비대면인 전화를 통해 물품 전달과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희숙 소장은 "어르신들이 전화를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 jota123@hanmail.net



달성, 빈곤 가구 기초생활보장 '힘 쏟아'

보건복지부 평가서 '2년 연속 우수'
해산·장제급여 적정 지급 등 호평

달성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평가를 거뒀다.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와 함께 제도운영 역량 및 사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이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우선 보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상정 보호 결정,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의 적정급여 지급 및 수

급권자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한시생활지원사업 집행을 위한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미리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뿐만 아니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의 조기 집행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내년에도 더욱더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석 기자 parkzest@naver.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관공서,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센추리를 구매해야하는 크나큰 이유!

1.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2.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3.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 회사인지??
4. 초기비용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5. 빠른 설치와 A/S 가 되는지??

SYSTEM 냉난방기 초특가 판매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220-7777

‘영주글로벌힐링타운’ 복합문화공간 마련

(주)정우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2021년~2022년, 132억 투입
진생베리제품 생산·판매 등
공장·관광호텔·카페 설립해

영주시는 29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주)정우와 ‘영주글로벌힐링타운’ 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정우는 풍기읍 미곡리 산 26-1 일원에 ‘영주글로벌힐링타운’ 조성을 위해 우연희 대표가 올해 설립한 법인이다.

(주)정우는 이번 투자양해각서를 통해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 영주풍기진생베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72억원을 투자해 3개동 60실의 관광호텔을 설립하는 등 총 132억원의 투자로 4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우연희 대표는 “진생베리제품 생산·유통 공장은 단순 제품생산장소를 떠나서 커피와 각종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복합적인 카페문화공간을 테마로

할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주지역에 힐링 컨셉으로 하는 글로벌힐링타운이 조성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 공간에서 먹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옥현 시장은 “풍기읍 일원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과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영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매우 기대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 (주)정우의 글로벌힐링타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투자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청송, 2021년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 부담 해소’

내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6156호에 지역사랑화폐 50만원

청송군은 내년 1월 4일부터 2021년도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청송군

임비 30억7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올해 대비 사업비는 약 1억원 증가했다.

지급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수령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본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내년 1월 한 달 간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조영국 기자wdr121@hanmail.net

영양 산림조합, 학생 꿈 응원·미래 인재 양성 ‘두 팔 걷어’

1000만원 장학금 전달
나눔 경영 실천 ‘모범’

영양군 산림조합은 28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교육 발전을 위해 써 달라는 뜻과 함께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성웅 조합장은 “영양군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양지역의 발전과 산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기탁 취지를 밝



혔다.

영양군 산림조합은 지난 1962년에 설

립돼 조합원이나 산주를 대상으로 임업기술지도와 임업정책자금을 장기 저

리로 융자하고 조합원의 가계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임업 발전의 주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해마다 이어지는 영양군 산림조합의 장학금 기탁은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이며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기탁에 앞장서 주신 영양군 산림조합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재)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으로 쌓여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naver.com

의성,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여’

2020년 ‘최우수 기관’ 선정
농촌융복합산업 등 ‘성과’

의성군이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민선 7기 일자리정책을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청년·노인·여성 및 농촌융복합산업·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등 분야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신성장산업 발굴, 기

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등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이웃시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포배양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분야별로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기존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예천,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우수기관’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신속 처리·측량 등 ‘큰 호평’

리제를 추진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민원업무와 지역 기준점을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 편의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공간정보 활용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국가공간정보 발전 국토교통부 유공기관 표창을 받은 점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학동 군수는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문경 농암면 새마을협, 지역 발전 견인

남녀지도자 40명 참석, 연말총회
주요 사업 실적 보고·결산 승인

봉사활동을 펼쳐 면민들의 복지 증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

김창희 새마을협의회장은 “올 한 해 새마을 종합평가 및 아름다운 내 고장 세천 가꾸기 사업 평가 등에서 기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농암면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한원 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에도 면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봉사활동을 솔선수범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농암면 지역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구미시, 은닉세원 발굴해 공평과세 실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행안부 장관상'… 교부세 1억 확보
조근호 주무관, 조사기법 연구 등 힘쓴 결과 수상으로 이어져

구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1억원의 지방교부세도 함께 확보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이같이 수상하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 심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225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창의성·적용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의 기준으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5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

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구미시가 우수한 사례를 통한 은닉세원의 발굴과 기업의 무거운 가산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해 우수사례 선정사유를 밝혔다.

동영상 발표는 구미시 세정과 세무7급 조근호 주무관이 평소 세무조사 업무를 통한 조사기법 연구 및 사례발굴에 힘쓴 결과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구

미시 선진세무 행정 위상을 높이는 계

기가 됐다.

장세용 시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



를 적극 발굴해 자치단체 간 공유·학산 함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성주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고등급'

협업 문화 조성·청렴도 등
신뢰받는 정부 부문 높은 평가

성주군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체 대상으로 펼쳐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경북지역 군 내 혁신 역량이 최고 수준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스스로 혁신역량을 비교·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혁신, 포용적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해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이 심사했다.

평가결과 총 62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 58개)가 우수로 선정됐으며 성주는 군평균보다 7점 이상 높은 점수로 전



국평균을 웃도는 등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우수' 등급을 거머쥐고 경북 군 중 혁신 으뜸지역으로 평가됐다.

성주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벼려지는 참여외 퇴·액비로 자원순환하는 지역혁신 기

반조성과 농어촌버스와 별고을택시의 연계, 장애인 일자리 고용의 포용적 행정, 특히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한 협업 문화 조성, 청렴도 등 신뢰받는 정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환 군수는 "군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우수 공직자들의 노고가 합쳐져 빛을 발한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혁신확산 및 주민체감도를 높이도록 행정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구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구미시가 내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

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

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 이전소득 반영비율의 완화,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혁성 구미시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김천, 노인요양기관 집단감염 차단 집중

종사자·이용자 선제적 검사

김천시는 관내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28일부터 별도 애내 시까지 종사자와 이용자(주야간보호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선제적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선제적 검사는 보건소에서 주관해 시설별로 진행을 하며 검사비용 및 검체 체취 장비와 도구, 방호복 등을 전부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또한 감염취약기관 및 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시설 내로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각 시설별 지정된 방역관리자를 통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 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증상확인 등 방역수칙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상주,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 전환

유튜브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

내년 1월 5일까지 1주일간

농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추가 접수

사전접수기간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주일간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대상자에게 신청한 과목의 교재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과정별 교육 일시에 맞게 당일에 유튜브 주소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교육 접수자들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의 일정표 및 접수 확인이 가능하다.

단 모든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전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해서 교육의 공백이 없게끔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추후에 품목별 교육으로 추가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하수 인한 수질오염·악취 '이젠 끝'

고령 대가야읍 내상리 마을 내

오수관로 2.6km 설치, 44억 투입

하수처구역확대사업 또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통해 오수전용 관로가 매설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피해를 덜게 되며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 하류에 위치한 내곡천의 수질보전 및 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군은 공사시 마을안길내는 영농철을 피해 공사하는 등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하게 관로 터파기 및 콘크리트 양생등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고령군 대가야읍 내상리 마을 내 69개 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중화리까지 포함하면서 고령하수처리구역을 내상리 마을로 확대 대가야읍 내상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을 내년도 1월에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2021년 1월에 착공해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44억원으로 국비 31억원을 보조 받아 오수관로 2.6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화저수지 상류 마을인 중화리, 내상리, 저전리, 신리 마을 모두

아리따움 경주점
(화장품, 향수)
대표 박선이
경북 경주시 계림로 102
TEL. 054-749-7979

기아자동차
차장 권 혁 만
경주지점 경주시 금성로 247번길 3
T 054)743-9736
M 010-3521-0734
세상을 놀라게 하는 킵! 기아자동차

대구경북 교육신문
www.tgedunews.com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동천동), 2층
Tel: 054.745.7277 / Fax : 054.745.0407

듀메리코리아
대표 황 속 향
경북 경주시 김해로 102(구황동)
문의전화 070-7782-6147
경북 경주시 김해로 102(구황동)
문의전화 070-7782-6147
경북 경주시 김해로 102(구황동)
문의전화 070-7782-6147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엑스포로 45
더케이경주호텔 본관 1층
안내 : 0507-1374-7755

경주평양냉면
대표 윤영선
경주시 원효로 109-2
TEL. 054-772-2448

정성종합건설(주)
경주지사장 오연진
경주시 충효동 2973-6 3층 301호
TEL. 054-773-0282
mobile. 010-3528-1335

영신정공
본부장 김영삼
자동차 부품, 조향부품, 엔진부품, 차체부품, 미션부품, 오일펌프 등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394
TEL. 054-745-4491

경주시수협
지점장 김윤정
경북 경주시 광충길 24
TEL. 054-705-1020

세한금속
»업 소음 주방가구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금속 주방용기 제조
대표 김효철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TEL. 054-773-0221

돈덩어리
숯불갈비 전문점
대표 고예정
경상북도 경주시 백들로 42
TEL. 054-773-5025

새마을환경개발(주)
대표이사 이효정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53, 2층
Tel. 054)253-8808 Fax. 054)253-3808
E-mail. lhjlove6687@naver.com
Mobile. 010-9113-0051

영덕대개 자원 보호 '불법포획 단속 강화'

민간 감시선 123척 운영 나서
암컷·어린대개 포획·유통 시
어업정지·징역·벌금형 부과

영덕군이 최근 통해안 대개자원회복 사업, 대개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대개자원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개는 우리나라 경북 북부 동해안, 함경북도 연안에 많이 분포하고 일본에는 서남해역과 냉수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대개는 일생동안 연중 탈피를 하면서 성장하는데 보통 9cm 자라는데 8

~9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대개암컷 1마리의 평균 산란량은 평균 5~7만미 정도이다.

대개 몸통 세로길이 9cm 미만은 체장미달대개(어린대개)로 보호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상 어린대개 및 대개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난 12일에는 어린대개 및 대개암컷 28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를 적발하기도 했으며 22일에는 장사동방 11마일 해상에서 대개통발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하고 대개 251마리를

불법 포획한 포항 선적 0호를 적발하기 도 했다. 이처럼 대개철을 맞아 영덕 해상에서 불법 대개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덕군은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 연안대개어업인연합회가 대개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123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다큐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영덕누리호는 지금 까지 총 5건의 대개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했다.

아울러 대개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강구, 축산 바다 수심 110m 부근에 동해안 대개 자원 회

복과 산란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72억, 대개 보육초 1666개를 총 650ha 면적에 설치해 대개 자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2월 제주대에서 실시한 대개산란 및 서식장 경제성 분석조사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노력이 40% 이상 대개 어획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이희진 군수는 "영덕의 주요 수산특산물인 영덕대개의 자원 보호를 위해 대개조업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개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주)위드앤, 울릉 코로나 확산 차단 '힘'

마스크 10만3000장 기부
1인당 13여장 배부 예정

서울 소재 (주)위드앤에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울릉도에 일반마스크 10만3000장(3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김용원 (주)위드앤 대표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요즘 청정 울릉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면서 "고령의 노인인구가 많고 지역 특색 때문에 감염자 발생 시 전 군민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게 됐다"고 마음을 전했다.

해당 물량은 전 군민에게 배부할 시 1인당 13장 정도가 배부될 정도로 많은 양이다.

주민들의 이용량이 많은 대중교통, 종교시설, 학교, 금융기관, 관공서 등 지역 내 주민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배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김병수 군수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현재 코로나19 확산 증세가 강한 와중에도 울릉군을 격정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주)위드앤은 제품의 기획, 개발부터 제조, 판매관리, 사후 A/S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구현하고 있는 전문 상품 기획 및 제조 회사로 신규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제조사의 상품 판매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정은 기자054791@naver.com

청도, 식품 공중위생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영예

안심접시·개인접계 등 지원
코로나 감염 방지 노력 '호평'

청도군은 2020년 식품 공중위생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의약정책분야, 식품안전분야, 공중위생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실적, 안심식당 및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추진실적, 식중독 발생관리,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수상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모든 분야에서 6년 연속 수상으로 특히 청도군이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위해 떨어 먹는 안



심접시, 개인접계, 수저접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홍보 및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살균소독제,

수기명부, 소독대장 등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이승호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안

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클린 위생업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안심학교·어린이집 16곳 선정
인형극 공연 등 맞춤 교육·홍보

울진군 보건소가 2020년 경북도 아토피·전신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진군 보건소는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등 아토피·전신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운영의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 질병관리청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2019년 경북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북도 주최 UCC·그립일기·포스터 공모전에서도 울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최

서영(7·최우수상), 임지우(7·장려상) 등 4명, 노음초등학교 배려원(4학년·우수상) 등 4명, 부구초등학교 오승민(1학년·우수상) 등 4명, 후포초등학교 2명, 후포동부초등학교 2명,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명, 평해어린이집 1명, 중앙어린이집(UCC참여) 등 울진군의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울진군보건소는 만성질환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안심학교 및 안심어린이집 16곳을 선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의 거리두기 대응단계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인형극 공연, 청소년·학부모·임산부 교실 운영 등 대상자별 맞춤식 교육과 홍보로 질환관리를 위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경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발달 '기여'

운영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392명에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경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드림스타트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국무총리 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경산시 드림스타트는 265가구 392명



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분야에 걸쳐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인원 총 8922명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다양한 체험과 학습 등을 제공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울해는 후원기관인 '나눔과 비움'도 장관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나눔과 비움'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장학금, 교복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허름하게 드림스타트를 운영해 준 직원들과 변함없는 성원을 해 준 나눔과 비움 한수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영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2021년 7월 31일까지 50% 할인
농업인 경영비 절감 등 '큰 보탬'

영천시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으로 가중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2021년 7월 31일까지 7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 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문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2021년 8월에 설립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화북면) 개소 준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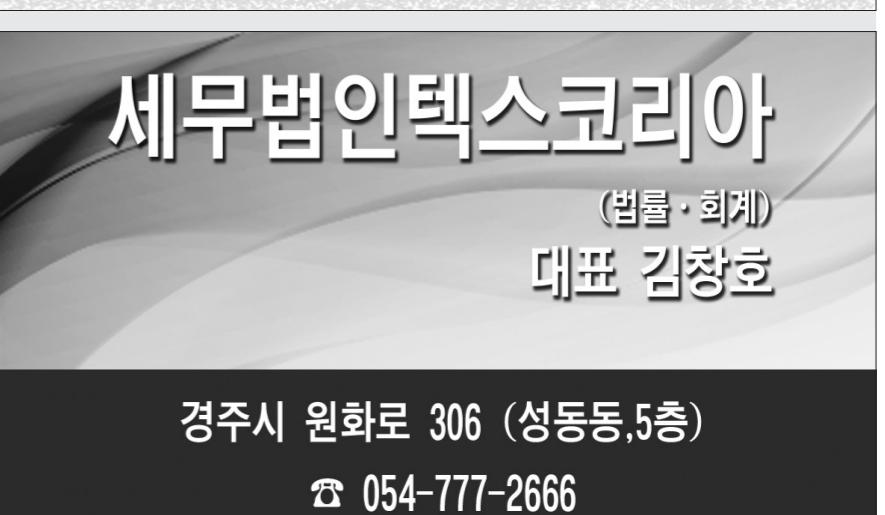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93종 877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502농가에서 8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했고 감면한 임대료는 2억3800만원이다.

정식열 기자jsy9292@hanmail.net

경상투데이
지면광고 문의
광고국 : 054-748-0070



장영남공인중개사
대표 장영남
광주시 용황로10길 14
TEL 054-748-1472



김천, 시민안전보험 재난·재해 등 불안 해소

市 주민등록자, 자동 가입·납부
강도·농기계 사고·화상수술 등
보장금액 한도 내 보험료 지급

김천시는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
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행한 첫
해부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
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
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
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
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통합콜센터(1522-3556)

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화
상수술비 및 농기계 사고·사망사고 등
총 11건 51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
다.

김종섭 시장은 “각종 재해·재난, 안
전사고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

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의성, 주민 중심 감동 민원행정 실현 ‘공로 인정’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폐지
응급비상밸 설치 등 시책 발굴

의성군이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실
현을 위해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해 새
로운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한 결
과 ‘2020 경북도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개소한 민원콜

센터(1588-1369)를 통해 행정에 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고 있
으며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및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을 운영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
공한다. 또한 민원실 응급비상밸(본청
민원실 및 18개 읍면)을 설치해 민원실
이용 군민 및 소속 공무원의 안전한 근
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했다.

군은 이와 함께 ‘민원모니터’를 운

영해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집·반영하고 오지 읍면 주민을 위해
부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읍면 주
가 설치 5개소, 군청 민원실 24시간 개
방),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분기별 민원분석을 통한 민원처
리 개선 및 향상 교육을 실시했고 전 직
원 전화친절도 조사와 친절교육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친절도·업무역

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주수 군수는 “고객이 만족하고 감
동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다양
한 민원시책을 발굴·추진해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인
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정성수 기자power5551@naver.com

성주 가천면, 공직자 삼시세끼 운동… ‘지역 상권 활력 불어넣어’

관내 음식점서 도시락 주문해
비대면 아침·점심·저녁 식사

성주군 가천면에서는 28일 면사무소
직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방역체계를 준수하기 위한 ‘언택
트(Untact) 먹자쓰는 운동’의 일환인
'성주에서 삼시세끼 운동'에 동참했다.

‘성주에서 삼시세끼 운동’은 위드
(with)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종식시간
외에 아침, 저녁도 관내 음식점에서 도
시락을 주문·배달해 먹는 것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기운



을 불어넣어 주고 경제 침체 회복에 조
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실시하는
운동이다.

이날 직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관내 식당에서 포장한 도시락을 개인
책상에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식

으로 먹자쓰는 운동에 동참했다. 한편
가천면은 지난 15일에 이미 한 차례 석
식 도시락 이용으로 삼시세끼 운동을
추진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
며 이번 참여에 이어 앞으로도 여러 관
내 식당을 언택트로 이용해 자영업자
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명순 면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먹자쓰는 운동에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 동참하겠으며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직원들도 개인방
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한
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정귀문 선생, 반어적 표현으로 애틋한 그리움 나타낸 ‘먼 훗날’

장옥조 작곡·정윤선 노래

먼 훗날(1980)-정윤선= 행여나 날
찾아 왔다가/못 보고 가더라도/옛
정에 매이지 말고/말없이 돌아가
주오/사랑이란 그런 것/생각이야
나겠지만/먼 훗날 그때는 이 사람
도/떠난 후 일 테니까//행여나 날
찾아 왔다가/못 보고 가더라도/추
억에 머물지 말고/말없이 돌아가
주오/사랑이란 그런 것/생각이야
나겠지만/먼 훗날 그때는 이 사람
도/떠난 후 일 테니까



MBC TV 탤런트 9기로 데뷔했으나
1978년 음반을 내며 가수로 전환했
다. 데뷔하자마자 3장의 독집앨범
을 연거푸 내는데 ‘잊지는 못할 거
야’ 등의 곡을 내놓으며 1979년 2집
의 ‘엽서’와 1집의 ‘무지개’로 MBC
신인 가수상을 수상한다.

전성기 인기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 위문에서 인기 1위를 달리
며 수많은 군부대 위문공연 초청을
받아 소위 ‘군대 여신’으로 지금의
인기 걸그룹 못지않은 사랑을 받기
도 했다.

10여년간 10여장의 앨범을 내면
서 활동하다가 매니저가 지병인 백
혈병으로 세상을 떠나 상심해 활동
이 뜰해진다.
최근 ‘스타다큐 마이웨이 정동환’
편에 출연해 연기자 정동환의 아내
로 조용히 내조하는 근황을 알려 팬
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도 했다.

김희동 시인

영덕 영해중, 언택트 교내 축제 ‘성료’

3부 제작,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독도 식물 사진전·체험 등 진행

물 사진 25점을 전시했다. 평소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과
계기 교육 시간을 통해 많이 배웠지만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이
번이 처음이었다.

3부는 소규모 체험 부스로 드론과 천
체과학 2가지 체험을 진행했다. 코로
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하
게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했다. 아울
러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스별
로 20명 이하의 희망자를 선별해 운영
했다. 언택트는 컨택트의 반대말로 코
로나19 시대에 생겨난 신조어인데 ‘언
택트’가 ‘온(溫)택트’로 번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여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
의 축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는 의아해 했지만 28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실시간으로 시작된 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부는 독도 식물 사진
전으로 유통도와 독도에 서식하는 식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천혜의 자연,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의성 圖

“내 가족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의성군

(주)서한, 지역 우수인재의 '든든한 지원군'

장학금·학교발전기금 5억 기탁
대구·경북 내 학생 372명 수혜
코로나19 구호물품·성금 전달
현혈 등 사회공헌활동 앞장서

을 한 해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19가 연말에도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매년 지역의 우수인재와 지역 내 학교에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기업이 있어 주운 겨울 지역사회에 따스함을 더하고 있다.

(주)서한은 장학재단(서한장학문화재단, 재산장학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24일 약 5억원을 대구·경북지역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했다. 수상자는 지역 내 우수인재로 선정된 장학생 총 372명이다.

(주)서한은 대구·경북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난 2006년부터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통해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추천받아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사업으로 대구경북의 경찰관 및 소방관 자녀 85명, 전국기능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47명, 국가유공자 자녀 10명을 포함한 장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3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대구경북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약 5억원을 지원했다.

이로써 (주)서한은 장학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장학생 총 2702명에게 장학금 28억원, 기타지원사업 총 7억원 등 총 35억원을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해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주)서한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억원의 성금과 일선에서 고군분투중인 의료진 및 관계자를 위해 방호복 1만1000벌, 라텍스장갑 10만장, 손소독제 8만개, 건강식품(홍삼) 7800세트 등 8억원의 구호물품을 직접 구매 및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총 10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주)서한은 당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나눔 현혈행사'를 개최 및 참여했고 지역민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하는 등 (주)서한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사회에 작지만 큰 힘이 되기 위해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하지 않았지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영상들과 사진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장학금 수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한 학생

은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고 덕분에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반드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주)서한 조종수 대표이사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힘든 학업생활 중에도 꿈의 방향을 잊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서한은 앞으로도 인재양성과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순풍에 둑 달아

㈜어반웰스와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 협약
7만8335㎡ 매입… 대우건설, 시공사로 참여

구미시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주식회사 어반웰스(대표이사 한종희)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협약을 맺었다.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의1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옥계중학교 옆 46만1000㎡(약 14만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814억원을 투입, 2300여세대, 63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2017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기를 했으나 송전선로 자중화 한전부담금, 배수지 신설 등 타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또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공동주택용지 체비지 매각을 4회에 걸쳐 실시 유찰돼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어반웰스는 거의1지구 공동주택용지 1블록과 2블록 7만8335㎡(약 2만3700평)

을 매입하고 시공참여 의향서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브랜드 푸르지오)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조성, 배수지 건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입찰이 선행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공사 추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지구이나 오는 2021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해 구미시에 추진하는 부지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대우건설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해 푸르지오의 명성에 걸맞게 구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명품아파트를 건설해 구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문경제일병원,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고용 질 높여 최상의 진료 제공 최선

신용보증기금, 우대지원 제공

문경제일병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한 2020년 좋은 일자리 기업 '최고일자리 20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고용문화를 전파하고 기업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우수기업 중 2020년 좋은 일자리 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 중 다시 심사를 거쳐 최고일자리 기업 20개를 선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5년부터 임금·복지수준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고 추가 고용 여력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기업 등을 발굴해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우대지원을 해 오고 있다.

2020년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된 문경제일병원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근무 혁신에 앞장서

는 등 효율적인 근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선정됐다. 최고일자리 기업에는 보증료를 우대, 유통화 회사보증 금리 우대,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이 제공되며 경영컨설팅, 임대청구를 통한 인재 채용,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등 비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우수한 고용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일자리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류창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고용의 질을 높여 직원이 행복하고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문경제일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원자력환경공, 재택근무로 업무생산성 ↑

인사행정학회 자문 설계안 완성
보완·협의 거쳐 내년 시행 예정

부적합 등 4개 그룹으로 나눴다.

또 공단의 재택근무제 설계안은 부서장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업무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내년 초 설계안 시행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분석 및 설계안 보완, 노사협의, 직원 설명회 등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향후 뉴노멀 시대를 고려해 재택근무가 단순히 감염병 예방 차원을 넘어 업무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취약계층에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한다

예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6억7500만원 확보, 2650가구 혜택

화 정책 목적성에 부합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유통 활성화 정책에도 단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대상자는 내년 1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로 지역 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신선채소, 과일, 우유, 달걀 등 식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9일 사업 전반에 대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편의 제공을 위해 각 가정으로 직접 꾸러미를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자 협의를 추진하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지고 있다.

장영우 기자ycy57@naver.com

(주)아스코 대표, 고령군에 사랑 나눔



이강하 (주)아스코 대표는 28일 고령군드림스타트에 사랑 희망나눔 이불 30채(15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주)아스코는 고령군 대가야읍 출신으로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매년 후원물품을 지원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이끌며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도 어려운 아동 50가구에 500만원 상당의 가정생활용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령군드림스타트에 기증하기도 했다.

곽용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고령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 hoya1515@daum.net

상주 상공참봉비, 연탄 1500장 기부



상주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4일 상공참봉비에서 상주연탄은행을 방문해 연탄 1500장(100만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미담사를 전했다.

정권 상공참봉비 대표는 “이번 나눔 행사로 주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인철 상주연탄은행 대표는 “상주연탄은행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후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도 등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공참봉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 changwan12@naver.com

(주)남경엔지니어링, 훈훈한 연말 분위기 조성 ‘보탬’

예티쉼터에 물품·기부금 등 200만원 후원
경주시청 방문, 희망2021 나눔캠페인 동참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시·토목 설계 전문회사 (주)남경엔지니어링이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주)남경엔지니어링 윤태열 대표와 직원들은 지난 24일 지역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예사랑단기보호센터(예티쉼터)를 찾아 물품과 기부금 등 200만원을 전달하며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주)남경엔지니어링은 창업 이후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예티쉼터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방문 전 시설에 꼭 필요한 물품목록을 받아 주문하고 매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시설을 방문해 준비한 물품과 기부금을 함께 전달해 오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평생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마땅히 이용할 곳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예티쉼터는 단기보호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훈련을 하며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티쉼터 기부행사 후 경주시청을 방문해 올해도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직접 돌아볼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까지 행기며 훈훈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힘을 실었다.

윤태열 대표는 “올해도 뜻깊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 나누는 것이 참 보람이라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작은 나눔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랄 뿐”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

운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꼭 어느 해처럼 직원들 모두 다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은솔 기자 eunsol1986@naver.com

동정

시정 주요 사업 관계자 면담



권영세 안동시장은 30일 시정 주요 사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청하요양병원 성금 기탁식 참석



장육현 영주시장은 30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청하요양병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천시체육회 성금 기탁식 참석



최기문 영천시장은 30일 오후 2시 영천시체육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참석



최영조 경산시장은 30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에 참석한다.

사업장·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윤경희 청송군수는 30일 동절기를 맞아 지역내 주요 사업장과 재난취약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공로패 수여



오도창 영양군수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군수집무실에서 진행되는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공로패 수여식에 참석한다.

재해예방사업 업무 협의 참석



이병환 성주군수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개최된 재해예방사업 업무 협의에 참석해 현안들을 논의했다.

2020 하반기 퇴임식 참석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30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2020 하반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을 축하한다.

달성문화재단 사령·위촉식 참석



김문오 달성군수는 30일 오후 3시 군청 군수실에서 열리는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사령·위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경미소, 저소득 소외계층 향한 온정 손길



김천 농소면 신촌교회, 어려운 이웃 라면 전달



문경시 산양면 소재 문경미소는 동절기 한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오미자김 100박스(90만원 상당)를 산양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윤태호 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아낌없는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 hyun0085@daum.net

김천시 농소면 신촌교회(목사 김영수)에서 28일 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32박스를 기부했다.

농소면 신촌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라면’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부한 라면은 80만원 상당으로 농소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광수 기자 kgs5149@naver.com

2020 희망리턴파키지 재기교육 참여자 모집(국비무료) 자영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취업 지원

“취업하고 누당100만원 받자!!”

자영업자 폐업에서 취업까지

재기교육으로 준비하세요

-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자금(수료후 취업시)
- ▷ 폐업예정자 원상복구 200만원 지원
- ▷ 고용센터 취업성공매개기연계(연매출 1억5천만원)
- ▷ 참여수당 및 훈련비 지원(최대 3백만원)
- ▷ 교육비 5만원 지원

1. 참여대상 자격확인(신인적자원개발원 054-776-6225)
2. 세무서 서류 확인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bitz.or.kr>) 회원가입후 제기교육:나월(My Work) 접고(Job Go)



신인적자원개발원
일자리지원센터

본사 | 경주시 원화로 341번길 7, 2F(성동동) 교육·문의 T.054)776-622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HD 신인적자원개발원(주)



청도군 화양읍은 주요복지서비스 안내 책자인 살맛 나는 복지 청도 알리미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분야 전국 주요 복지서비스와 산하 맞춤형복지 특화사업 등 총 17개 사업안내가 간략히 설명돼 있다.

또한 우체국 공의재단 지원사업, 청도군 100대 사업인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흥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물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장, 새마을 3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최호승 읍장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살맛 나는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울진 후포면, 도시재생예비사업



울진군 후포면 주민예비사업이 국토부가 실시하는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오는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 체계 개편’에 따라 소규모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합해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포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사업계획은 지난 후포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조작된 예비사업 추진조직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추진했다.

사업비는 총 2억 1000만원(국비 1억 500만원)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유공간 조성,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연계 행사 개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예천, 클린·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기여’

식품·공중위생관리 ‘대상’

예천군이 경북도 주관 2020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의약정책(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추진 등 음식문화 개선) △식품안전(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공중위생(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코로나19 방역관리) 분야 등 정부합동평가와 주요 역점 시책을 평가했으며 군은 12개 항목 전반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음식점 선택권 제공을 위해 위생 환경이 우수한 음식점 35개소를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했으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클린 예천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안심식당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경 코로나 19 극복, 클린예천 족 2020 경상북도 식품·공중 위생분야 대상 수상

한편 예천군은 올해 △경북도 식품안전관리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 우수 △경북도 안심접시 및 안식식당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상주 낙동면 한우회, 소외계층에 온정 손길

상주시 낙동면 한우회는 28일 낙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낙동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 등 700만원 상당의 이웃 돋기 성품(낙동면한우 誠品)을 기탁했다.

낙동면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61가구를 선정해 성품으로 기탁된 백미,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연내 전달할 예정이다.

정임용 회장은 “이번 기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느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병구 면장은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웃을 위해 선뜻 내 주신 한우회 회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내 성숙한 이웃사랑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달성 다사읍 숲속예은유치원, 희망 나눔



달성군 다사읍 숲속예은유치원은 지난 24일 다사읍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89만 2400원과 물품 300여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전체 원아 330명이 직접 꾸민 저금통에 모은 동전으로 마련한 것으로 가정에서 장난감 정리, 신발 정리, 부모님 심부름 해 드리기 등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받은 용돈을

또한 어려운 가정의 친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난감, 책, 직접 만든 머리핀 등 물품 300여개를 함께 기부했다.

박영은 원장은 “작은 돈이 모여 큰돈이 되고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강석 기자parkzest@naver.com

참빛봉사회, 김천 기부문화 확산 ‘앞장’



참빛봉사회는 28일 김천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김주록 회장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나눔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여러 회원들과 뜻을 모아 동참하게 됐다.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사람, 사람들

경상투데이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13

상주서문교회, 이웃 돋기 성금



상주서문교회는 28일 복지 사각지대에 어려운 이웃을 돋고 싶다면 희망 2021 이웃 돋기 성금 500만원을 상주시청에 기탁했다. 상주서문교회는 지난 1954년 9월 15일 설립해 2009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박희태 장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 돋기 운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석 시장은 “어려울 때 힘이 돋주는 상주서문교회의 정성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존심에 부지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의성 비안면 사회보장협, 난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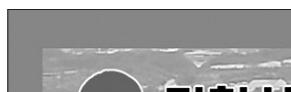


의성군 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병호, 민간위원장 배금희)는 지난 24일부터 지정기부금 500만원으로 ‘우리 마을 행복온도 올리기’ 에너지(난방)복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우리마을 행복온도 올리기’ 사업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겪으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유와 연탄을 지원해 에너지복지 향상과 주민 건강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원대상자는 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가호호’ 위기기구 발굴로 어려움을 확인한 20가구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향후 비안사랑봉사단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Happy together 김천
친절·질서·청결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김천!

Happy together 7대 실천목표

친절한 김천시민

질서 지키는 김천시민

청결한 김천시민

참여하는 김천시민

양심 있는 김천시민

예절 바른 김천시민

배려하는 김천시민

<https://gc.go.kr>

#자두 #포도 #호두 #지례흑대지 #산채정식 #과하주 #직지사 #부항담 출렁다리 #레인보우 짚와이어
#수도산 무흘구곡 #사명대사 공원 #김천혁신도시 #김천일반산업단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치매 환자·가족이 걱정 없는 'Happy together 김천'



치매보듬마을 힐링프로그램 운영.

김천시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춰 지난 2019년 2월 26일 구 치자동주민센터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가족카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 실시

김천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지난 8월부터 보건지(진료)소로 확대해 양질의 조기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매주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거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 등 협력병원에 의뢰해 노령영상촬영 등에 대한 검사비를 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YES 사회적 고립 NO

김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치매환자쉼터를 한시적으로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로 변경해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운영했다.

107명의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안부 전화, 콩나물 및 방울토마토 키우기 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했다.

치매고위험군 2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을 활용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회상·작업·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뇌톡!톡! 방문서비스'를 운영했다.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과 실종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김천경찰서와 연계해 사

전지문등록, 배회인식표를 무료로 제공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대여 지원서비스를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매어르신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등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독거 및 부부 치매어르신과 만 75세 이상 노부부 등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어르신을 발굴해 주 1회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주기적인 안부 전화 및 가정방문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밀착·집중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 밖에도 아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하는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헌화방법 사업, 어르신들의 생신을 맞아해 케이크를 전달하는 '해피투게더! 해피버스데이!' 생신축하 사업을 실시해 소외감과 우울감을 덜어드렸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며 주간캠페인 개최,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경북보건대학교 치매극복 봉사동아리 '실버어벤져스'도 캠페인에 동참해 치매예방운동 영상을 제작했으며 치매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만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무료'

송영서비스·협력병원 감별 도움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 운영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방지

김천경찰서 연계, 실종예방 힘써

약제·진료비 지원해 경제 부담 ↓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동반자로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양성했으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니어클럽, 노누파워크리닝,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경북보건대학교 등 7개소는 치매극복 선도단체·기업 및 선도학교로서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치매어르신 및 인지저하자가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남면 옥산2리를 보듬마을로 선정했으며 치매보듬운영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를 통해 치매극복 공동체를 형성하고 치매보듬가게 6개소를 선정해 가게 내 리플릿 비치 및 치매서포터즈 교육을 통해 치매 이해를 도와 치매어르신 배려문화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사회적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힐링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해 지난 11월 10일 치매어르신 및 가족을 포함한 마을주민이 국립김천치유의숲, 김천시 사명대사공원과 연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및 한복체험, 평화의 탑 관광 등 나들이를 다녀왔다. 그 밖에도 마을회관 환경개선,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치매어르신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의 장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 확대

치매안심센터를 주축으로 치매 관련 전문가 및 유관 기관·단체로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해 치매정책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 사각지대 없이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접촉 확대·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 김천시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우한나회 후원 물품(쌀 20kg, 라면 1박스)부터 중앙보건지소 무료의치(틀니) 지원서비스, 김천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케이크나눔 행사, 긴급생계비 지원, 폭염취약계층 어름나기 물품지원과 한국도로공사 중고냉장고 지원으로 치매 어르신들에게 경제·정서적으로 도움을 줬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와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간부문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사 각 지
대에 있
는 치매
어르신
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낙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팡이를 지원 받아 제공했으며 김천농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쌀과 즉석조리음식 등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 100박스를 제공했다. 또한 관내 반찬가게 '예반'의 밑반찬 후원을 받아 치매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했다.

향후 김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프로그램 등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준비해 확대·운영함으로써 치매 돌봄에 대한 공백 없이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충섭 시장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 걱정 없는 김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gs5149
@naver.com



▲김충섭 김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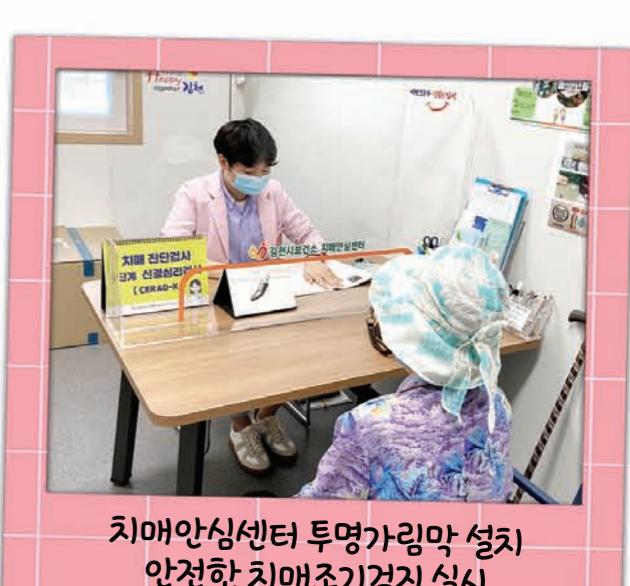
어르신 맞춤형 인지키트 '기억쏙쏙 꾸러미'



김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치매안심 홈스쿨링 운영

치매안심센터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한 치매조기검진 실시

/ 특별기고 /

지방차별 메커니즘(mechanism)



김 휘 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다고 대서특필이다.

지방의회의 자체인사나 자치경찰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지방의회독립(법제정)과 재정분권 및 정당공천폐지 등 지방자치의 핵심은 없다.

지방의회 전문인력은 1/2 수준이고 주민자치회도 빠졌다고 하니 속 빙 강정이다. 특히 지방의원 정치후원금도 후보등록 시에만 선거비용의 1/2를 허용해 평년에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천지차이다.

국가를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해 지방을 나눠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와 지방의 메커니즘(mechanism)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지방의회나 공무원제도부터 도로나 하천관리까지 모든 방면에서 지방이라는 이유로 격이 낮은 차별을 받고 있다. 지방이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하급기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부터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으로 전 국민의 과반수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어렵게 살더라도 지방에서 차별받는 것 보다 낫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각 시·도별로 청년들이 2~3만명씩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급기야 팔도에서 시·도 광역행정통합 메가시티로 수도권을 경제해야 된다고 난리다. 지방자치의 분권개념을 뒤엎고 지방수도라도 만들자고 나선 것이다. 수도권의 블랙홀에 대항한다는 자구책 논리이나 시군구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차별을 보면 국가공무원과 신분이 다르고 직급이 현저히 낮으며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도 없는 폐쇄조직이다.

중앙부처 과장은 3급이나 시도는 4급이고 시군구는 5급이다. 또한 같은 지방공무원도 시군구와 광역시도 간의 계층구조로 이원화 돼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면서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0년 전에 진시황의 대륙통일도 개방형 단일공무원제도로 이뤄졌다.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고관대작이 될 수 있었다.

도로나 하천관리 분야도 지방차별은 기가 막힌다. 자동차가 달리고 물이 흐르는데 국도와 지방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규격이 다르고 관리도 제각각이다. 국도는 안전한 갓길이 있고 지방도는 갓길이 없는 죽음의 길이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상이 다르고 합류지점이 정체나 역류되기도 한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국도와 지방도에서 운전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이 흐르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서 다르게 흐를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행정 분야의 지방차별도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나 고작 20%의 재정자립도는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살펴야하는 시군구의원이 중앙정치에 얹매이는 것이나 국비 80%에 지방비 20%의 빈껍데기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지방차별 메커니즘을 이대로 두고 지방소멸을 막자, 시·도 행정통합 메가시티를 만들자 해봐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시군구읍면동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분권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분산과 지방분권 정책을 혁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교, 종합병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문화관광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방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지방소멸이 아닌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도를 단행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민과 이주정책으로 지역을 발전시킨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고 백년대계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방차별 메커니즘을 과감하게 혁파해나가야 한다. 우주나 사회의 블랙홀은 모든 것을 흡수해 파멸시킨다. 아파트 한 칸에 수십억이나 거품이 들끓는 수도권 블랙홀은 언젠가는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천도에 버금가는 수도권분산과 지방차별 철폐를 완수해야 한다.

내년부터 맹견 보험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동물 관련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펫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도 오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강아지)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증은 2022년부터 발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암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담류취, 살모사 등 589종에서 과일박쥐, 맹크 등 9390종으로 확대돼 해당 동물들을 수입·반입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입·반입 허가 제도 운영 시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의 검토도 의무화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2021년 11월 27일 이후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뗏보험 특약으로 판매중이다. 이는 대부분 500만원 선으로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3월 개몰림 사고 발생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 됐으나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 했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한 것이다.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 기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화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제보	☎ 054-748-0070	E-mail	: gstd3000@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양정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원 /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세요



하승우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시대가 변하고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목적과 용도에 맞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제만 봐도 그렇다. 세제는 '이물질을 씻어내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용도·목적에 따라 세탁용과 주방용, 화장실용 등으로 나뉘고 분말, 액체, 티슈 등 형태도 조금씩 다르다.

소화기도 마찬가지다. 소화기는 '불을 끄는 기구'로 투척용 소화기, K급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과거에는 소화기 비치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소화기를 우선 비치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소화기 비치를 넘어서 안전을 위해 장소와 용도에 맞는 소화기를 구비하는 게 중요해졌다.

흔히 '주방용 소화기'로 알려진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등·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기구다.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소화하는 원리다.

일반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꽃을 보면 당황해 물을 뿌리기 마련인데 주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에서 물을 뿌리는 행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식용유 화재는 물로 진화할 수 없고 일반 소화기로도 완전한 진압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K급 소화기가 근처에 있다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2017년 6월 12일 시행됐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소와 목적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면 비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안전은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인지하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새해 일출,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온(ON)가족
온(ON)라인

2021
일출축제



경상투데이 일출축제



실시간 생방송



집에서 즐기고 푸짐한 선물 받으세요~!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

2020년 12월 31일 밤 8시 50분~

2021년 01월 01일 00시 20분

2021년 01월 01일 5시 30분~7시 50분